



공항철도, 직통열차 임시 운행 일반 열차 노선에서 추가로 운행

공항철도(김한영 사장)는
운휴 중인 직통열차를 지
난 10월 5일부터 직통열차
운행 재개 시까지 일반 열
차 노선에 추가 투입해 임
시 운행하고 있다.

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
스 감염증(코로나19) 감염 예방을 위해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고,
공항철도의 프리미엄 열차인 직통열차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확
대해 국민들의 일상에 작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자
마련됐다.

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시운전을 통해 열차 신호체계 및 통신
시스템 운용, 승강장안전문(PSD) 개폐 등 분야별로 열차 운행에 대
한 안전성 확보와 정식 운행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.

직통열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편도 28회 운행한다.



특히 차내 혼잡도 완화를
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
위해 출퇴근객이 붐비는
오전 7~9시, 오후 6~8
시에 총 10회가 집중적으
로 투입된다.

이번 임시열차 추가 운행

에 따라 공항철도 운행 시각이 전면 조정됐다. 자세한 시간표는 홈
페이지와 역사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임시열차는 기존 일
반 열차와 동일하게 승차하면 되고, 별도의 추가 운임은 없다.

김한영 공항철도 사장은 “기존 직통열차는 서울역과 인천공항 1, 2
터미널역만 정차하고, 중간역에서는 탑승할 수 없어서 승강장에 정
차하지 않는 열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용객이 많았다”며 “이번 기
회를 통해 공항과 서울 도심에 연결하는 우수한 공항 인프라 교통
인 직통열차를 이용해보길 추천한다”고 말했다. ●